

발간사



1982년 8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A강당에서 대한신경과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학회나 창립되기까지는 유관 학회에서의 견제나 학회 창립의 주도권 문제 등으로 산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대한신경과학회도 창립 이전부터 신경정신과에서 파생된 계열과 내과에서 파생된 계열의 두 줄기가 서로 갈등, 통합하면서 기존의 신경정신과학회 및 내과학회의 공식적인 인정하에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학회가 창립한 지 벌써 20년이 경과되었다니 참으로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창립 당시 우리 학회는 신경정신과에서 분리되는 형태로 창립되었기에 신경정신과 회원들의 기득권이 인정되어 회원이 숫자상으로는 200여명에 달했으나 실제로 신경학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약관의 나이로 선배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총무라는 직책으로 학회살림을 처음 꾸리기 시작하던 창립 당시에 비해 지금의 우리 학회는 질적, 양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본인이 이사장이라는 직책으로 대한신경과학회의 20년사를 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20년사를 발간함은 현재의 학회가 있기까지 우리 학회를 발전시켜오신 그 이름을 거명하기도 송구스러운 여러 선배 선생님들의 공헌을 기리고, 동시에 한국신경학을 대표하여 왔다고 자부하는 우리 학회의 그간의 업적과 활동을 조명하고 역사를 기록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현재 회원 및 미래의 회원들이 앞으로 더욱 알차게 학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함일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신경과 학문을 연구하고 신경계 질환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이 모인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회원들간에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 한마음으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와 함께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20년사를 발간함에 여러모로 수고하신 편찬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문을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 후학들의 협조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 4월 1일
이사장 노재규